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259

전태일의 글쓰기 변화과정과 그 의미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를 중심으로—

이 정 안*

요 약

1970년대에는 죽음정치적 노동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착취당하고 있는가를 생생히 기록한 글들이 증가한다. 전태일의 수기와 편지, 일기 등은 1970년대 노동소설, 노동수기의 출현과 1980년대 노동열사 서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태일의 수기, 편지, 일기 등을 모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을 살펴보면 전태일의 글쓰기가 일기, 회상수기, 편지, 소설초안의 순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열병과 같은 짝사랑의 감정을 토로한 전태일의 일기는 노동열사로서 완결된 그의 서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평전에서 제외되게 된다. 사적공간에 남아있던 전태일의 글쓰기는 그가 바보회를 조직하였던 1969년을 기점으로 수신자를 의식한 글쓰기로 바뀌게 된다.

전태일은 원섭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운전수 모자를 쓴 사내를 통해 유적 존재를 탈취당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이러한 전형적 인물의 형성화는 그동안 일기라는 사적 공간에 머물러있던 전태일의 글쓰기 공간이 확장됨을 시사된다. 또한 같은 내용을 두고 시점과 특정 장면의 연출을 달리하여 다시 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전태일의 회상수기에는, 사건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전태일의 욕망이 드러난다. 서사가 부재하였던 일기와 달리 그의 회상수기는 강한 서사성을 띤다. 전태일의 자기서사 안에 내장되어 있던 소설에 대한 욕망은 그로 하여금 세 편의 소설 초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안을 작성하게 만든다.

전태일은 허구적 인물을 창조하고 서사를 구축함으로써 소설쓰기에 도전한다. 이와 같이 전태일의 글쓰기는 독자를 두지 않는 글쓰기에서 청자(독자)를 의식하는 글쓰기이자 서사성을 지향하는 글쓰기로 바뀌어갔다. 전태일의 글쓰기가 점차 소설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게 된 이유는, 당시 소설이 사회 전반에 행사하고 있던 막강한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

주제어: 전태일, 일기, 수기, 편지, 1970년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노동문학

목차

1. 들어가며
2. 선택되지 않은 일기
3. 전형적 인물의 형상화와 자기서사의 형성
4. 소설 지향의 글쓰기
5. 나가며

1. 들어가며

1973년 11월 24일에 동고광업소의 광부 17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 12월 초까지 발생했던 2798건의 탄광 사고 중 하나였다[1]. 안전시설이 허술한 갱도 속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작업을 저임금을 받으며 수행해야 했던[2] 광부들 중 현장감독을 맡았던 김종호의 품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다. 갱이 무너지기 시작

1) 황석영, 「벽지의 하늘」, 『민중을 기록하라』, 실천문학사, 2015, 60면.
2) 「탄광참사 혹사 저임에 시달리다 간 뒤 남은 유족들은 살길이 막연」, 『동아일보』, 1973.11.30.

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그 유서에서 황석영은 "학대받는 자의 지혜와 두려움"[3]을 읽어낸다. 김종호의 유서에는 입구가 붕괴되어 광부들이 매몰되었으며, 연층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종호는 입을 잃어버린 망자를 대신해 회사 측에서 사고의 원인을 망자의 부주의로 돌리고, 그에 따라 유족들이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이다.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서발턴인 김종호는, 그의 육성에 해당하는 유서를 쓰지 않았더라면 헤게모니를 장악한 소수에 의해 더욱 오염된 방식으로 재현/대표(represent)되었을 것이다.[4]

위의 예처럼 문자 그대로 "죽음정치적 노동"[5]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착취당하고 있는가를 생생히 기록한 글들이 1970년대부터 증가한다.[6] 이러한 현상의 앞머리에는 전태일의 분신이 있었고, 분신을 행하기 전보다 먼저 쓰여 졌으나 분신 이후에 발표된 전태일의 글이 있었다.

1970년 11월 13일에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며 분신을 한 전태일의 죽음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1960년대에 종종 목격되었던 "자기 신체에 대한 보살핌을 포

3) 황석영, 같은 책, 75면.

4) 이처럼 김종호가 유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동고광업소 측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광부의 안전 부주의로 돌렸다. 사측은 황석영과의 인터뷰에서 사고는 광부가 갱내에서 피운 담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재해보상도 충분히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동안 노동시간이 엄수되었다고 말하는 등 노동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세웠다.

5) 이진경은 생명권력과 노동의 개념을 죽음의 가능성에 연결된 것으로 재개념화하면서, '죽음정치적 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죽음에 이르도록 운명 지워진' 사람들로부터의 노동의 착취(추출)이며, 그로 인해 이미 죽음이나 생명의 처분가능성이 전제된 사람의 '부양'은, 국가나 제국의 노동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선에서 제한된다."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40면.

6)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김성환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37권, 한국현대문학학회, 2012를 들 수 있다.

기함으로써 저항을 실천하는 방식"인 단식[7]보다도, 분신은 훨씬 극단적으로 자기 신체를 포기하는 저항 방법이었다. 그의 분신은 1970년대 당대 노동 현실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노동문제를 고발하고, 노동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개인들을 의식화하는 기제로서 작용하였다. 전태일이 목숨과 맞바꿔가면서까지 사회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전태일이 쓴 수기와 일기 등을 모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1988),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8]등을 통해 유통되었다. 1970년대 노동문학의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황석영의 『객지』에서도 전태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전태일의 분신은 1970년대의 거대한 뿌리에 해당하는 '노동'문제[9]의 심각성을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노동소설, 노동수기의 출현과 1980년대 노동열사 서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연구대상[10]일 뿐만 아니라 국문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주제였다.[11]

---

7) 권보드래, 「4월의 문학-근대화론에 저항하다」,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84면.

8) 저자가 조영래로 표기되기 시작한 시기는 출판사 돌베개가 개정판을 낸 1990년부터다. 83년에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전태일 평전의 저자는 '전태일기념관 건립위원회'로, 사실상 익명 처리되었다. 그러나 조영래 사망 이후 돌베개가 90년대 개정판을 내면서부터 저자가 조영래임을 밝히고 제목도 『전태일 평전』으로 바꿨다. 본고에서 참조한 판본은 2009년도 판본이다.

9) 노동문제를 두고 '거대한 뿌리'라 칭한 이유는 노동문제가 도시화, 민주화, 노동자/지식인 글쓰기, 젠더문제, 민중이라는 개념 문제 등과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이다.

10) 대표적인 연구로 아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임송자,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65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신병현, 「민주노조운동의 전태일 애도와 재현」, 『역사연구』20권, 역사학연구소, 2011.

11)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천정환, 「'전태일이야기'와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제작·수용과정」, 『한

그러나 세간에 전태일 이야기가 전태일이 직접 쓴 글들의 모음집인『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보다는 조영래가 쓴『전태일 평전』을 통해 더 널리 알려진 것처럼, 기존 연구도 전태일의 글쓰기 자체보다는 '전태일 재현'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태일의 육성에 해당하는『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경향을 지적하며 전태일의 글 자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논문이 나오기도 하였으나[12]. 이 논문에서도 전태일의 글은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전태일이라는 인물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서 분석되고 있다.

전태일의 글은 노동자들의 자기재현 문제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의 글은 "문학 능력"[13]이 결여된 존재로 여겨졌던 노동자가 글쓰기의 주체로 거듭남을 보여줌과 동시에,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준다. 특히 "노동의 문제는 소재 차원이 아닌 개별 노동자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14]는 의견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만

국 뉴웨이브의 정치적 기억』, 연세대출판부, 2007.
박숙자, 「기억과 재현으로서의 애도:『전태일 평전』」,『국제어문』67권, 국제어문학회, 2015.
김원, 「전태일 분신과 80년대 "노동열사" 탄생의 서사들」,『민족문학사연구』59권, 민족문학사연구소2015.
김예림, 「어떤 영혼들」,『상허학보』40권, 상허학회, 2014.

12) 오창은, 「민중의 자기서사와 한국 노동현실의 증언」,『한국문학이론과 비평』7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13) 천정환은 "'문학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초 문해력을 훨씬 넘어서는 학교교육이나 문학적 경험과 아비투스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민족문학사연구』47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32면.

14) 홍성식, 「서발턴에 대한 진실한 기록, 1970년대 르포」,『한국문예비평연구』42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401면.

큼, 노동문학에서 노동자가 창작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삶을 증언하는 행위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태일의 글이 '노동자'로서의 자기정체성 형성과정을 보여준다는 주장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본고는 그의 글쓰기가 자기정체성의 반영이라는 협소한 틀 안에서만 논의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전태일의 글보다 '노동자(열사)'로서의 그의 서사가 대중에게 더 먼저 알려진 탓에, 전태일의 글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의 '노동자(열사)' 표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독해되어 왔다. 이런 경우 노동자로서의 의식화 순간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계급의식과는 무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부분처럼 독해 과정에서 버려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노동열사의 탄생'이라는 사후적인 서사보다 선행하는 텍스트를 그 서사에 맞춰 재단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전태일의 글을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룬 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고의 주된 관심사는 제도 문학의 관점에서 전태일 글의 문학성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계급의식'과 더불어 '문학성'은 80년대 노동문학의 한계를 지적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였다. 주로 계급의식은 과잉되어 있고 문학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노동문학의 한계로 거론[15]되곤 하였다.

즉 전태일의 글은 '노동자(열사)로서의 문학'이라는 관점과, 제도 문학적 관점에 기인한 평가로 인해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는 것이 본고가 가진 문제의식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태일의 일기, 편지, 수기, 소설초안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15) 이재선, 「집단적 신명과 비판의 무기-김지하와 박노해」, 『노동과 예술』, 지양사, 1985, 467쪽.

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그의 글쓰기에 내장되어 있는 욕망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선택되지 않은 일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에는 어린 시절 회상수기1→ 어린 시절 회상수기2→ 일기→ 친구 원섭에게 쓴 편지→ 일기 속의 단상들1→ 일기 속의 단상들2→ 대통령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편지)→ 소설초안1→ 소설초안2→ 소설초안3→ 모범업체 설립계획서→ 결단→ 평화시장 근로조건 실태조사 설문지→ 근로조건 개선 진정서의 순으로 글이 실려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인 회상수기와 일기와 편지 그리고 소설 초안을 작성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기(1967년 2월14일~3월 23일)
② 어린 시절 회상 수기와 친구 원섭에게 쓴 편지(1969년 가을)
③ 대통령과 근로감독관에게(보내는 편지) (1969년 11월경)
④ 소설초안1, 일기 속의 단상들1(1969년 9월~12월 31일)
⑤ 소설초안2, 일기 속의 단상들2(1970년 초)
⑥ 소설초안3 (1970년 4월경)

위의 집필 순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태일의 글쓰기는 독자를 두지 않는 글쓰기에서 청자(독자)를 의식하는 글쓰기로 바뀌어 갔다. 전태일이라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고백에 해당하는 그의 일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감정은, 다름 아닌 절절한 짝사랑의 감정이다.

한미사 재단보조공으로 취직한 전태일은 1967년 설 연휴에 함께

가게를 지키던 오금희라는 여성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다. 67년 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일기의 첫 페이지는 오금희를 잊고자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이희규에게 오금희와의 교제를 권하는 편지를 보내고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전태일은 주인의 처제이자 자신보다 세 살 정도 위인 오금희를 '이모'라고 부르다가 서로 의남매가 되기로 약속한 후부터는 '누나'라고 부르며 따른다. 21편의 일기[16] 중에서 오금희에 대한 연정, 그리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으로 인한 비애와 고독을 표현한 일기는 13편에 달한다.

오금희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연정을 토로함과 동시에 전태일은 김소월의 「못잊어」, 「밤」, 「초혼」, 「진달래꽃」과 같은 이별의 시를 일기장에 적어두곤 했다. 고백했다가 실연당한 것도 아닌데, 전태일은 끊임없이 오금희를 마음속에서 떨쳐버리려고 분투한다. 전태일이 오금희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출세'에 걸림돌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선생님께 편지를 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된 것인지는 나 자신도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행했을 뿐이다. 솔직히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앞날의 출세를 위해서 이 공장에서 완전한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절제 할 수 없는 감정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한참 피어나는 사랑을 찍어 버린 것이다. (*밑줄: 인용자)

전태일이 생각하는 출세란 다름 아닌 공장에서 완전한 재단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가 생각한 재단사는 직공들의 입사와 해고, 임금 문제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였다. 자신도

16) 67년 2월 30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일기가 두 편이 있는데, 2월 20일의 오기로 보인다.

재단사가 되어 "공임 타협을 할 때에는 약한 직공들 편에 서서 정당한 타협을 하리라 결심"[17]한 그는 미싱사로 일하며 받던 월급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재단보조로 한미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약 4개월 뒤 꿈꾸던 재단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했던 출세는 요원해 보였다. 한미사는 임금을 아끼기 위해 재단보조를 따로 두지 않고 6명이 할 일을 전태일 혼자에게 다 맡겨버린다.

그렇게 전태일이 한미사에서 하루 15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 발로 한미사를 나가지 않은 이유는 다름 아닌 오금희 때문이었다.

> 하루 15시간 일을 하지만 누나만 있으면 괴로움을 몰라요.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부르고 싶은 누나라는 소리. (중략) 오늘도 누나와 같이 23시 45분까지 공장에서 시아게를 했다. 그러지만 고단하지를 안아다. 누나와 같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다 하지 싶으다.[18]

전태일은 또한 "보잘 것 없는 나를 동생으로써 대하여 주신다는 누님의 정에 보답하는 것은 이 집 일을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해서 누님의 언니내 집이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그 자리에서 굳게 마음에 다짐"[19]한다.

일기는 완결된 자아상을 향해 기술하는 서사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독자를 염두에 둔 수사 또한 일기에 동원되지 않는다.[20] 전태일이 일기를 쓰고 있던 시점의 그는 노동열사가 아니었으며, 오금희

17)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돌베개, 1988, 75면.
18) 위의 책, 110면.
19) 위의 책, 84면.
20) 김성연, 「"자전문집"의 출판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 『민족문화연구』7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3면.

에 대한 감정의 구구절절한 수사 또한 특정 독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전태일이 사망함으로써 노동열사로서의 그의 서사가 완결된 이후에 집필된『전태일 평전』에서 오금희에 대한 연정을 표현한 그의 일기를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 현장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열사의 서사에서 '공장 주인의 처제를 위해서는 15시간 노동도 불사하는 청년의 애끓는 마음'이 기입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전태일의 짝사랑은 완결된 그의 서사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평전은 저자와 주인공이 일치하지 않는 장르다. 주인공의 삶의 파편들은 저자의 시선에 따라 서사화되는 과정에서 취사선택되고, 선택된 파편들은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반면 선택받지 못한 파편들은 버려진다. 300페이지에 달하는『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의 짝사랑에 대한 언급은 1페이지 남짓에 그치고 만다.

일기는 기본적으로 특정 수신자를 설정하지 않은 사적인 기록에 해당한다. 물론 유명인사의 옥중 일기처럼 처음부터 출판을 목적으로 쓰이거나 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공적 증언(personal testament)의 의미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21] 그러나 67년경의 전태일의 일기는 공적 증언으로 전환될 여지가 별로 없었다.

사적공간에 남아있던 전태일의 글쓰기는 1969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성격이 변하게 된다. 69년은 그가 바보회를 조직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시작한 해다. '착한 재단사'가 되어 약한 직공들을 지켜주겠다는 바람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은 전태일은, 개인의 선의 대신 조직의 힘을 믿고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이때부터 그의 글쓰기도 수신자 없는 내면의 토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21) 위의 글, 18-20면.

3. 전형적 인물의 형상화와 자기서사의 형성

1969년 경, 전태일은 원섭이라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참혹한 노동현장에 선 다른 노동자의 모습을 묘사한다.

> 그런데 우스운 일이 있네. 나와 마주보고 삽질을 하던, 그 배가 사장 배 이상으로 앞으로 처지고 키는 1.7m나 될 사람이 어디서 얻어 쓴건지 기름에 쩌른 운전수 모자를 쓰고 바지는 군복바지에 흰 고무신을 신어네. 넌링싸쓰는 구멍이 마치 벌집처럼 뚤렸(린) 것을 입고 오른손엔 목장갑을 끼었는데 손가락은 다섯 개가 다 나오고 손바닥만 장갑구실을 하는 것일세. 얼굴은 일을 활 때나 쉴 때나 꼭 마도로스가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일세. 그저 무의미하게 사물을 파(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 같애. 삽질을 하나, 점심을 먹나 시중 무관일세.
>
> 만약에 그 기름에 저린 운전수 모자를 벗겨버린다면 그 사람은 당장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바보가 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네. 그만큼 그 모자는 그 사람을, 그 부처같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을, 그 사람 전체를, 육체의 맨 위인 머리에서 거해 감독하고 이 그 사람을 속세의 사람과 같이 만들어버렸어. 지금 현재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말일세. 사실 그 사람이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세. 그 때에 띠(절)긴 모자가 하고 있는 걸세.[22]

전형은 "작가가 묘사의 수단으로 고안한 집단을 대표하는 특별한 인물"[23]을 의미한다. 운전수 모자를 쓴 사내에게서 전태일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노동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소외된 노동의 폭압을 읽어낸다. 그리고 그처럼 육체적 실존이라는 목표 외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내의 모습이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임과 동

22) 전태일, 같은 책, 120면.
23) 김인환, 『언어학과 문학』, 작가, 2008, 18면.

시에 "몸서리치는 사회의 한 색깔"[24]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전태일이 친구 원섭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육체노동자로서의 자신의 고단한 삶 그 이상이었다. 그는 운전수 모자를 쓴 사내를 통해 유적 존재를 탈취당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그 노동자상(像)에는 전태일 자신뿐만 아니라 공사장 인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재롱이나 떨 나이에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힘들게 일하는' 어린 직공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전형은 작가가 관념을 통해 구성한 장치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전형을 통해 작가는 현실을 묘사하고 더 나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전형은 독자와 작가와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창작의 출발점이기도 하다.[25] 따라서 전태일이 '운전수 모자를 쓴 사내'라는 전형적 인물을 형상한 것은, 그동안 일기라는 사적 공간에 머물러있던 전태일의 글쓰기 공간이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편지와 비슷한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 어린 시절 회상 수기 또한 주목을 요한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와 『전태일 평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글은 바로 이 회상 수기이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회상 수기1과 회상 수기2는 거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 태양은 마른 대지 위의 무엇이든지 태워버릴 것 같이 이글거린다. 열 네 살의 한 소년이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 부산진역에서 엣(옛)날 그가 살던 영도섬 다리 쪽으로 무거운 다리를 옮겨놓고 끌어놓으면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국제시장 입구 어는 양화점 쇼윈도우 그늘진 곳에서 잠시 갈증 나는 더위를

24) 전태일, 같은 책, 120면.
25) 김인환, 같은 책, 18-20면.

피하고 있다. 소년은 누구, 무엇에게 반항함이 없이 생각한다. 나는 왜 언제나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하고, 항상 괴로운 마음과 몸 그리고 떨어진 신발에, 남이 입다 버린 헌 때뭉치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할까를. 누구 하나 그 소녀은(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없다. 다시 걷는다. 옛기억을 더듬으면서 좌우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힘없이 걷고 있다. -「회상 수기1 中」[26]

태양은 마른 대지 위의 무엇이든지 태워버릴 것 같이 이글거린다. 허기진 배를 움커리 쥐고 부산직역에서 옛날 내가 살던 영도섬 쪽으로 무거운 다리를 옮겨놓고 끌어놓고.

아, 저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길래 전부가 다 행복한 얼굴들일까? 나는 왜 이렇게 언제나 배가 고파야 하고 마음이 항상 괴로워야 할까?

저 앞에 시청이 보인다. 국제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엔 만국기가 꽂혀있다. 아마 오늘이 무슨 날인가 싶다. -「회상수기2 中」[27]

회상 수기1과 회상 수기2는 모두 서울에서 행상을 하던 전태일이 미수금 문제로 고민하다가 부산으로 가출을 하고, 영도섬 근처 바다에 떠다니는 배추를 잡으려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사연으로 시작된다. 이렇듯 동일한 문장, 동일한 사건으로 시작되는 회상 수기1과 회상 수기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회상 수기1은 주인공을 '소년'이라 칭하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고, 회상 수기2는 '나'가 주인공 화자로 등장하는 1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다.

전태일의 회상 수기1과 2는 ①산문으로 된 이야기이자, ②한 개인의 삶을 다루고 있고, ③저자와 화자가 동일하며, ④화자와 주인공이 동일하고, ⑤이야기가 과거 회상형으로 씌어야 한다[28]는 자서

26) 전태일, 같은 책, 24면.
27) 위의 책, 36면.

전의 규약에 어느 정도는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고전적인 자서전은 1인칭 시점을 취한 자기 서술적(autodiégétiqué) 이야기긴 하지만, 화자와 주인공 사이의 동질성만 확보된다면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어도 자서전이 될 수 있다.[29]

그러나 화자가 (자기 자신인) 주인공과 거리를 둠으로써 주인공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조망하려는 3인칭 글쓰기를 시도한다는 점은, 전태일의 지향이 고전적인 자서전보다는 자전적 소설에 있지 않았는가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⑤이야기가 과거 회상형으로 쓰여야한다는 규약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회상 수기1과 회상 수기2 모두 전태일이 영도다리 쪽으로 걸어가다가 바다에 빠져 구조되는 장면까지는 현재형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서술들은 과거형으로 쓰였다. 특히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는 수기1에서는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이 어린 소년이 왜?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30]라는 문장을 기준으로 현재시제와 과거시제가 갈리고 있다.

소설에서 특정 시제가 쓰였다고 하여 그것이 실제 현실의 시간을 지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상 수기1과 회상 수기2에서 현재시제로 기술된 '영도섬 사건' 역시도 전태일이 이 글을 집필한 시기로 추정되는 69년 가을보다 훨씬 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도섬 사건을 현재형으로 쓴 것은 현실의 시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그 사건을 극적인 장면으로 '보여주고'싶다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장면의 극적인 연출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편집하는 과정까지 포

28) 필립 르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82, 17면.
29) 위의 책, 20-25면.
30) 이광수의 『무정』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다. 전태일, 같은 책, 26면.

함한다. 바다에서 구출된 소년/'나'는 서울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0원을 얻게 되는데, 100원을 얻게 되는 경위가 회상 수기1과 회상 수기2에서 각각 다르게 제시된다.

회상 수기1에서 소년은 서울로 가는 기차에 무임승차하려다가 기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넘겨진다. 파출소에서 허기와 피로에 젖어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소년은 약간의 연기까지 곁들인 덕에 순경으로부터 100원의 식대를 받고 파출소를 나오고, 함께 기차 안에서 붙들린 만덕이라는 소년과 함께 100원으로 팥죽과 빵을 사먹는다.

그러나 회상 수기2에서는 서울로 가는 기차에 무임승차한 '나'는 승무원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나'가 의자 밑으로 숨자 그 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치마를 밑으로 내려서 '나'를 감추어준 덕분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나'가 탑승한 기차는 서울행 기차가 아닌 영천행 기차였다. 실의에 빠진 '나'가 영천역 대합실에서 앉아 있다가, "순진하고 마음씨 곱게 생긴 새색시"[31]가 떨어뜨리고 간 100원을 줍게 된다. '나'는 밀려오는 허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역 앞 음식점으로 달려가 인절미를 사먹고 난 뒤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100원을 얻게 된 사연은 회상 수기1보다 회상 수기2가 훨씬 더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회상 수기 2에서 허기에 지친 상태로 앉아있던 '나'는 새댁이 아기를 달래려고 깎아둔 누렇게 변한 사과를 허겁지겁 줍다가 벤치에 굴러 떨어진다. 반기절한 상태에서도 사과를 미친 듯이 씹어 먹던 '나'가 바닥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새댁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100원이다.

그런데 왜 화자는 하나의 실제 경험에 대해서 두 가지의 판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회상 수기, 자서전은 주인공 화자의 경험에 대해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진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렇지 않으

31) 위의 책, 43면.

면 주인공과 화자의 동일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의 경우 얼마든지 이야기를 꾸미고, 여러 개의 이야기 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회상 수기1과 회상 수기2 중에서 전태일의 실제 경험과 일치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작가 자신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것 자체가 자서전으로서의 이 글의 신뢰도를 하락시킨다.

서사가 부재하다시피 했던 그의 일기와 달리, 전태일의 회상 수기는 강한 서사성을 띤다. 왜 전태일은 회상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기서사를 구축하려 했을까? 그리고 왜 같은 경험을 대상으로 시점과 시제를 달리 쓰고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서술하는 시도를 했을까? '시점'과 '시제'라는 일기가 아닌 소설에서 고려되는 개념이 등장하는 가운데, 좀 더 사건을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연출에 대한 욕망까지 텍스트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글이 '청자에게 어떻게 읽힐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서사문학은 세계와 그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간의 관계를 이야기와 화자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이야기는 화자를 통해 청자(독자)에게 전달된다.[32] 바보회를 결성한 1969년 경의 전태일에게는 많은 청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그의 가난, 운전수 모자를 쓴 사내로 대표되는 노동자의 소외, 노동 현장의 참혹성. 이 메시지는 전태일의 자기서사 안에 응축된다. 그리고 자기서사 안에 내장되어 있던 소설에 대한 욕망은 전태일로 하여금 세 편의 소설 초안을 작성하게 만든다.

32) 조정래·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1, 27면.

4. 소설 지향의 글쓰기

전태일이 첫 번째로 작성한 소설 초안의 제목은 「가시밭길」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정희와 준오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 추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벼운 애정행각을 벌인다. 그러나 갑자기 정희를 사랑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준오는 정희를 버려두고 서울행 버스에 혼자 탑승한다. 정희가 자신에게 너무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할 수 없다는 준오의 내적 독백이 이어진 후, 동아일보에 한 법학도의 죽음을 다룬 기사가 실리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 된다.

습작이라는 명칭조차 붙이기 민망한 수준의 소설 초안이지만, 전태일이 '정희'와 '준오'라는 허구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언제나 명랑한 성격에 자존심이 강한' 준오는 법 자체의 모순을 시정하지 못하자 법이 시정되기를 기도하며 자살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태일과 유사성을 지닌 인물이다. 정희 또한 준오가 사랑하지만 너무나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맺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금희와 닮았다. 그러나 준오는 법학도이며, 전쟁고아에, (이 소설 초안을 작성하던 당시의 전태일과는 달리) 죽어버렸다는 점에서 전태일과는 다른 인물이다. 정희 또한 전태일이 '누나'라고 불렀던 금희와 달리 준오보다 어린 여성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금희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존인물과 허구적 인물 사이의 간극에서 전태일의 욕망이 드러난다. 전태일은 바보회가 창립된 지 얼마 후 당시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2700원을 들여 근로기준법해설서를 사는데,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쓰인 그 책을 국졸인 전태일이 이해하기란 무리였다. 이때부터 그는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다고 한다.[33] 법대생이라는 설정은 근로기준법해설서를 손에 얻었지만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전태일의 지식 소유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정희가 준오보다 어린 여성이라는 점도 전태일이 "누님(*금희)은 나보다 왜 나이를 먹어야 되나를 생각"[34]하며 금희가 연상이라는 점을 마음에 걸려했던 점과 무관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다.

일기, 자서전과 소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화자와 주인공의 동일성 여부이다. 전태일은 자신의 욕망에 근거한 허구적 인물을 창조해냄으로써 소설쓰기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 그런데 그렇게 허구적인 인물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태일은 창조된 인물을 자신의 실제 삶의 그늘 밖으로 빼내지 못한다. 정희는 금희보다 어려졌지만 정희와 준오의 사랑은(전태일과 오금희가 실제로 그러했던 것처럼) 이루어지 못하고, 준오는 법학도이지만 법의 모순을 시정하지 못한다.

허구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소설의 핵심에 해당하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전태일은 실패한다. 단행본을 기준으로 4쪽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의 「가시밭길」에는 서사, 작품의 분위기, 주제 등과 무관한 배경묘사에 꽤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

> 바람이 제법 기운을 낸다. 아주까리 약한 허리를 꺾을려고 덤빈다. 키다리 해바라기는 머리가 무거워 큰 키를 굽혀 사정을 한다. 제발 화를 풀으시고 잠잠하시라고.
>
> 난쟁이 맨드라미는 해바라기 하는 꼴이 우스워서 못 참겠는 표정이다. 웃지 않으려고 얼굴빛이 노오란다. 해바라기 옆에 선 코스모스는 허리가 휠까바 그 날씬한 어(허)리를 심술꾸러

33) 조영래, 『전태일 평전』, 돌베개, 2009, 166면.
34) 전태일, 같은 책, 85면.

> 기 가시철망에다 기댄다. 철망은 기다렸다는 듯이 갖냘푼 허리를 정말 휘어지게 끌어 않(안)는다. 질색을 하는 코스모스. 해바라기는 목이 아파 목(못) 견디겠는지 노오란 눈물을 한 방울 두 잎 날린다.[35]

온갖 자연물이 등장하는 이 배경묘사는 일종의 템플릿과 같은 기능을 한다. 전태일은 이러한 배경묘사가 소설과 같은 문학적 글쓰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 번째 소설 초안에서도 위 인용문과 유사한 배경묘사를 발견할 수 있다.

> 바람이 기운을 낸다. 코스모스 가늘은 허리를 꺾으려고 덤빈다. 키다리 해바라기 머리가 무거워서 오만하게 큰 키를 굽히면서 사정을 한다. 바람님 화를 거두시고 잠잠 하시라고. 난쟁이 채송아는 허리 굽히면서 사정하는 해바라기 모습이 우습단다. 해바라기 밑에선 맨드라미 웃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노란게 웃는다. 철망 옆에선 코스모스, 허리가 휠까봐 그 날씬한 허리를 심술쟁이 가시철망에다 살머시 기댄다. 심술쟁이 철망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가냘푼 허리를 정말 휘어지게 끌어안는다. 수줍어서 허리가 아파서 얼굴이 창백하다. 키다리 해바라기 정녕 목이 아파서 노오란 눈물을 한 방울 두 잎 날린다.[36]

그러나 인물·사건과 무관한 배경묘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설의 서사성이었다. 전태일도 이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두 번째 소설 초안은 서사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전태일은 두 번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소설의 구성요소, 구성의 진행형식,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특질, 소설의 감상과 독해요령, 소설의 성격에 대해 메모해 놓았다.

35) 위의 책, 140-141면.

36) 위의 책, 152면. 또한 153면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풍경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도 소설 이론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메모 뒤에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라는 두 번째 소설 초안이 이어지는데, 「가시밭길」과는 달리 스토리가 개조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산만한 이 소설 초안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인공은 죽기를 결심하고 옛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송곡을 부른다.

② 주인공의 자살을 눈치 챈 주인공의 마음 속 연인 숙이 장송곡을 듣고 기절한다.

③ 숙을 사모하는 B는 숙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공의 필적을 위조해 주인공의 옛 회사 사장에게 보내는 협박장을 만들고 주인공으로 위장해 사장을 살해하며, 식모를 기절시켜서 그를 강간하려다 실패한 것처럼 현장을 꾸민다.

④ 누명을 쓴 주인공은 사형을 구형받는다.

⑤ 주인공의 직장 동료들인 〈바보회 회원〉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B를 수상히 여긴 숙은 B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단서를 잡기 위해 B와 동거를 한다.

⑥ 주인공의 남동생은 집에서 형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형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⑦ 숙은 B의 집에서 B가 범행시에 입었던 옷을 발견한다.

⑧ 주인공의 남동생은 형의 일기장을 법정에서 공개하여 판사들에게 형의 올바른 인간성과 심리상태를 알리고자 하나 주인공은 자신의 일기를 공개하는 것을 극구 반대한다.

⑨ 동생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일기장을 법정에서 공개하자, 주인공은 그 일기장이 전부 다 조작된 것이라며 자신의 일기를 부인한다. 그 때 동생이 주인공에게 다가가 어떤 말을 전하니 그 말을 들

은 주인공이 일기 공개를 허락한다.

⑩ 주인공의 일기장이 방청객들과 검사, 판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주인공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는 전태일이 남긴 세 편의 소설 초안 중 가장 자기지시적인 성격이 약한 글이다. 이 소설 초안에서 전태일을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전태일이 조직했던 〈바보회 회원〉들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뿐이다.

이 소설 초안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주인공이 자신의 일기를 대하는 태도다. 주인공은 사형을 당할지언정 자신의 일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다시 일기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행간에서 내면 고백은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생각과, 내면 고백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모두를 읽어낼 수 있다. 주인공의 일기를 읽은 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주인공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결말은, 목숨과 맞바꿔가면서 내보인 내면의 순수성이 세상을 바꾸리라는 전태일의 순진함(혹은 소망)을 드러낸다.

세 번째 소설 초안인 「기성세대의 경제관념에 반항하는 청년의 몸부림」의 주인공은 J다. J의 서사화된 삶은 전태일의 삶과 거의 일치한다. 문제는 너무 똑같은 나머지, 독자들이 이를 소설이 아닌 자서전으로 읽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태일 평전』의 저자인 조영래도 소설 초안에서 J가 남긴 유서 내용을 전태일의 유서라 단정 짓는 우를 범한다. 비록 J와 전태일 간의 유사성이 많이 발견될지라도, 소설의 주인공인 J와 자연인 전태일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소설 초안에서는 친구들이 J를 대구에서 기다리다가 유서를 받은 날이 4월 19일경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전태일이 실제로 사망한 날은 11월 1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전태일은 소설을 완성시키지는 못했다. 소설 이론서까지 메모해 가며 소설쓰기에 도전했던 전태일이지만, 그 결과물은 '소설'이 아닌 '소설 초안'으로 남았다. 소설을 완성시키지 못한 전태일이 최후로 선택한 언술행위는 육체로 말하는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불타오른 그의 육체는 지켜져야 할,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되었다. 육체는 정신적 갈등이 각인되는 장소이며, 상징화의 장소를 제공하고 언어 자체의 장소를 제공한다.[37] 노동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각인되어 있는 전태일의 육체는 노동 그 자체로 상징화 되어 노동에 관한 사회적 발화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5. 나가며

그런데 전태일은 왜 소설을 쓰고 싶어 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 문학의 위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전태일이 생존하였던 1960년대는 국가 주도 하에 교양주의 담론이 널리 유포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독서운동이 붐을 이루었다. '읽어야할 책'의 중심에는 문학이 있었으며, 문학의 중심에는 소설이 있었다.[38] 60년대부터 시작된 독서운동은 70년대로 이어지며 1970년대는 이른바 '소설의 시대'[39]로 불리게 된다.[40]

37) 피터 브룩스,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30면.

38)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407면. '민족중흥을 가져 온다'는 독서운동과 국가주의의 포획된 수상한 교양의 실체에 대해서는 『1960년의 묻다』 8장-9장을 참고할 것.

39) 용석원, 「1970년대 문학 장과 연작소설의 부흥」, 『대중서사연구』28호, 대중서사학회, 2012, 236면.

40) 1966년에 3천1백2종을 기록한 발행부수는 1975년에 이르면 8천8백47종에 이른다. 출간된 8천8백47종의 도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은 2천4

『외딴 방』의 화자가 구로공단의 동남전기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산업체특별학급'에 다니던 3년 남짓(1978~1981)의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한 힘도 다름 아닌 문학에 대한 열정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양의 보고인 문학을 창작해내는 문학가(특히 소설가)는 '위대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 4월 26일 오늘은 종일 시를 썼다. 헬만 헷세. 하이네. 윌리엄 워즈워드, 바이런, 괴에테, 푸시킨. 이 얼마나 훌륭한 이들의 이름인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할만큼 그들은 훌륭하다. 아, 나도 그들의 틈에 끼고 싶다. (중략) 감히 내가 저 위대한 이들의 흉내를 내려 하다니. 이거야 말로 짐승이 웃고 저 하늘의 별이 웃을 것을 모르고…아무 지식도 배움도 없는 나는 도저히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없다.[41]

위의 인용문은 1975년에 동일방직에 입사하였던 여공 석정남의 일기의 일부이다. 석정남은 '아무 지식도 배움도 없는 나'와 '훌륭한 그들' 사이의 격차를 실감한다.

필자는 전태일의 문학청년으로서의 열정이 그를 소설쓰기로 인도했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전태일도 그의 글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베니스의 상인」, 「비계 덩어리」등을 언급한다. 그러나 전태일에게 시급한 과제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글을 쓰는 것이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러 다니는 동안 만난 노동청 출입 기자를 붙잡고 기사를 간곡히 부탁하는 전태일, 1970년 10월 7일『경향신문』에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기사가 실렸을 때 환희에 가득 찼던 전태일을 떠올려보자. 그에게는 노동

백 43종의 문학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1천3백23종으로 소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책 발행 후 최고 기록-출협 75년 발간 도서집계」, 『매일경제』, 1976.02.03.

41) 석정남,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화』11월호, 1977, 188면.

현상의 참상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들의 말은 묵살하는 관리들에게 진정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신문기사의 위력도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국졸 출신의 노동자의 말에 직접적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소설가는 달랐다. 소설가는 소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입을 가진 자였다.

1970년대 노동문학의 등장은 전태일의 분신에 빚지고 있다. 『객지』는 발표되자마자 '이달의 소설'로 선정되고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으며[42] 이 작품으로 황석영은 "문단에 충격을 주고 문학사상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은 작가"[43]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객지』를 필두로 한 노동문학의 대두는 "바이런, 하이네, 베르레느, 소월"로 그려졌던 문학의 지형도를 "황석영, 고은, 강은교"로 바꾸어 놓았다.[44]

전태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노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싹 틔운 그들의 언어는 1980년대에 만개한다. 전태일의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자 수기가 출간되고, 석정남과 전태일의 글은 홍희담의 「깃발」(1988)과 같은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의식화를 위해 꼭 읽어야 하는 글로 등장한다. '아무 지식도 배움도 없는 나'와 '훌륭한 그들(문학가)'의 간극에 좌절하던 노동자들이, 1970년대 문학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1980년대에 이르면 그들 스스로가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태일의 소설 초안 중 하나인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에는 자신의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42) 「이달의 소설」, 『동아일보』, 1971.5.17.
43) 「새 차원에 들어선 최근의 문단」, 『경향신문』, 1973.11.13.
44)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일월서각, 1984, 54면.

특정한 사태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녔으면 하는 전태일의 소망이 담겨있다. 물론 전태일의 글쓰기가 일기와 같은 사적인 글쓰기로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전태일이 다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파급력은 훨씬 약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태일은 독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소설 지향의 글쓰기를 감행하였고, 특히 그가 남긴 최후의 소설 초안은 (비록 자서전으로 오인되기는 하였으나) 그가 바랐던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회의 변혁을 일으켰다.

전태일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이유는 그의 글이 뛰어난 문학성을 지녔기 때문은 아니다. 어설픈 문장, 두서없는 구성에도 불구하고 글에서 엿보이는 삶과의 치열한 고투의 흔적과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전태일의 갈망이 독자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태일의 글은 서발턴의 진실된 기록의 서장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1. 논문

김성연, 「"자전문집"의 출판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 『민족문화연구』7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7-39면.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37권, 한국현대문학학회, 2012, 353-386면.

김예림, 「어떤 영혼들」, 『상허학보』40권, 상허학회, 2014. 339-380면.

김원, 「전태일 분신과 80년대 "노동열사" 탄생의 서사들」, 『민족문학사연구』59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105-143면.

임송자,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65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319-360면.

박숙자, 「기억과 재현으로서의 애도: 『전태일 평전』」, 『국제어문』67권, 국제어문학회, 2015, 41-69면.

신병현, 「민주노조운동의 전태일 애도와 재현」, 『역사연구』20권, 역사학연구소, 2011, 7-38면.

오창은, 「민중의 자기서사와 한국 노동현실의 증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7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115-147면.

용석원, 「1970년대 문학 장과 연작소설의 부흥」, 『대중서사연구』28호, 대중서사학회, 2012, 235-256면.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47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24-254면.

홍성식, 「서발턴에 대한 진실한 기록, 1970년대 르포」, 『한국문예비평연구』42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399-418면.

2. 단행본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김인환, 『언어학과 문학』, 작가, 2008.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일월서각, 1984.

이재선 외, 『노동과 예술』, 지양사, 1985.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돌베개, 1988.
조영래, 『전태일 평전』, 돌베개, 2009.
조정래·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 평민사, 1991.
피터 브룩스,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필립 르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82.
천정환 외, 『한국 뉴웨이브의 정치적 기억』, 연세대출판부, 2007.
황석영 외, 『민중을 기록하라』, 실천문학사, 2015.

3. 기사

석정남,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화』11월호, 1977.
「새 차원에 들어선 최근의 문단」, 『경향신문』, 1973.11.13.
「이달의 소설」, 『동아일보』, 1971.5.17.
「책 발행 후 최고 기록-출협 75년 발간 도서집계」, 『매일경제』, 1976.02.03.
「탄광참사 혹사 저임에 시달리다 간 뒤 남은 유족들은 살길이 막연」, 『동아일보』, 1973.11.30.

<Abstract>

Transformation of Jeon Tae-Il's writing and its implication

Lee, Jung-An

In the 1970s, a different genre of literature has been salient in Korean literature. Namely, the labors who were in necropolitical labor vividly described how their lives have been exploited. In particular, Jeon Tae-Il's diaries, letters and memoirs played a vital role in contributing to both arising labor literature and labor memoirs in the 1970s and narrativizing the workers' rights activists in the 1980s.

Do Not Make My Death Futile is the collection of Jeon Tae-Il's memoirs, letters, and diaries. In the book, it is noticeable that Jeon Tae-Il's writings were gradually transformed in a distinctive way. To be more specific, while Jeon Tae-Il wrote mainly diaries and memoirs in the early stage of his writings, he wrote letters and a draft for a novel in the late stage. Thus, Jeon Tae-Il writings had been stylistically sophisticated and he had been slowly aware of the readers. Interestingly, Jeon Tae-Il's biography excludes his diaries about his unrequited love because this kind of diaries would blemish his reputation as workers' rights activists.

From 1969, when he organized Babohoe (literally The Fools), Jeon Tae-Il's writing was not confined into a private area. Rather, his writing was turned into reader-oriented writing and he was clearly

aware of readers. In his letter to Won-Seop, describing a man with driver's hat, Jeon Tae-Il configured a labor who was in extreme work condition and was estranged from human being's Gattungswesen (species-essence). By configuring a typical character instead of describing the inner world and private experience, Jeon Tae-Il's scope of writing was extended.

Furthermore, Jeon Tae-Il attempted to revise his memoir by shifting viewpoints on the same event and describing the same event differently. These attempts reflect his desire to dramatize events. While his diary lacks a coherent narrative, his memoir shows an impressive narrativity. The latent desire to the novel in his memoir and his narrative made Jeon Tae-Il write three drafts for novels. In the end, by creating fictional characters and constructing plots, Jeon Tae-Il attempted to write a novel.

The transformation of Jeon Tae-Il's writing can be wrapped up in two aspects: First, the scope of his writing had been gradually extended from private writing to reader-orient writing. Second, his writing evolved into narrative-oriented writing. The reason why Jeon Tae-Il attempted to write a novel seems to be related to the strong social impact of a novel in the 1970s.

Key words: Jeon Tae-Il, diary, memoir, letter, 1970s, Do Not Make My Death Futile, labor literature

투 고 일 : 2018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